

대상농장, 일본 고급 육가공 시장에 진출...

국내 업계 최초 매월 25톤 선적



대상농장이 국내 업계 최초로 일본 고급육가공 시장에 진출한다.

국내 최대 축산물 생산·유통업체 (주)대상농장(사장:마재현)은 일본 무역상사와 고급육가공 제품인 ‘본인 프랑크 소시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일본 육가공시장 개척에 나섰다.

대상농장은 1일 월 25톤 수출물량 중 1차로 15톤의 제품을 선적했으며,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 오는 2000년에는 약 6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할 방침이다.

이번 수출 계약은 대상농장이 제품개발과 생산을 담당하고, 일본 무역상사는 일본내 마케팅 활동과 홍보, 판매를 담당하는 형태로 체결되었다.

이를 위해 일본 무역상사는 최신의 일본시장 정보제공과 기술적인 지원을 하게 되며, 대상농장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개발과 품목을 다양화하고, 위생적인 품질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상농장은 그동안 일본에 수출해 온 고급 냉

장돈육 ‘하이포크’에 이어 ‘본인 프랑크 소시지’ 수출을 계기로 침체된 국내 육가공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한편, 대상농장은 일본 고급 육가공시장 공략을 계기로 향후 국내 육가공 업계에도 고급햄, 소시지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는 계획하에 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조사를着手할 예정이다.

〈제품소개〉

제 품 명 : 본인 프랑크 소시지

제품규격 : 300g, 500g

포장형태 : 인쇄 삼방 진공포장

보존온도 : -18°C 이하 냉동보관

유통기한 : 1년

제품특징 : - 무방부제

- 고기입자를 그대로 살려 씹는

맛을 강화시킨 소시지

- 순 볼기살로 만들어 육 함량

이 높은 고급 소시지

- 고급 천연 향신료를 첨가하여

고기본연의 맛을 살린 제품